

군수가 밀어붙이고 공무원 푹푹 뭉쳐 뒷받침 장성군 현안 해결 '뚝심 행정' 빛났다

좁고 위험한 신광철도박스(남동가도교)가 확장됐으며 고려시멘트 앞 도로가 두 배로 넓혀졌다. 많은 자치단체가 탐냈던 공공실버주택은 해당 부처의 사업 지침까지 바뀌거나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모두가 불가능할거라 생각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군민 숙원사업들이지만 군수가 나서 밀어붙이고 공무원들이 푹푹뭉쳐 이뤄낸 결과물이다. 군수를 중심으로한 장성군의 '뚝심 행정'이 성과를 내고 있다.

◇ 해결 난망한 주민 숙원사업 군수가 직접 나서 풀어=지난달 27일 장성군 북이면에서는 특별한 중공식이 열렸다. 수십 년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해 온 신광철도박스의 확장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신광철도박스는 호남선 철도가 놓이면서 자연스럽게 동·서로 갈라진 두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다. 신철, 만루, 모현마을 등 많은 주민들은 관공서와 금융기관, 터미널, 시장이 모여 있는 철도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이 터널을 이용했다.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행로인 셈이다. 그러나 터널이 오래 전 폭 5m, 높이 3.9m 크기로 만들어진 탓에 겨우 차량 한 대만 지날 수 있을 정도로 협소했다. 차량이나 경운기 운행이 늘어나 종종 사고가 일어났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했다. 시설도 오래 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새롭게 확장되어야만 했다.

전다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철도박스를 넓혀 달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찾아 수차례 요청하고 탄원서를 보내는 노력을 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유두석 군수가 나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유 군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찾아가 안전시설진단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지난 2016년 공단으로부터 시설개선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총 사업비 67억원이 투입돼 폭 11m, 너비 5m로 크게 넓혀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

좁고 위험한 신광철도박스 넓히고 고려시멘트 앞 도로 4차선 확장 광역단체로 한정된 공공실버주택 국토부 사업 지침 바뀌 유치 성공 유두석 군수 "군민 편하게 해야죠"

해 위치를 옮기고, 접속도로도 새롭게 포장해 말끔히 단장됐다.

장성의 첫인상을 확 바꾼 고려시멘트 앞 도로의 확장도 이 같은 노력의 성과다.

고려시멘트 공장 앞 굴곡진 2차선 도로는 통행량이 많아 답답했지만 지난 5월 4차선 도로로 개통돼 시원하게 뚫렸다.

오래 전부터 확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도로 양쪽으로 고려시멘트 공장 부지와 일반 주택가가 맞물려 있어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군은 고려시멘트 측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인근 주민을 설득해 공사를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군은 장성역-정운교가 구간과 영천주공아파트-황룡시장 구간까지 포함한 장성을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등 시가지 주요 도로를 4차선으로 연결해 교통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사업지침을 바꿔주시죠" 끈질긴 노력으로 성과=장성군의 뚝심행정은 공공실버주택 유치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공공실버주택은 정부가 고령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게 내놓은 한국형 실버주택 사업이다. 그러나 당시 사업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공모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대상지를 광역자치단체로만 한정했다.

유 군수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기초자치단체에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해당부처를 찾아갔다.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복지 인프라가 열악하고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2016년 사업 대상지로 광주·전남에서는 장성군이 유일하게 대상지로 뽑히는 성과를 거뒀다.

결실은 이번 만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100세대를 장성에 배정했지만, 유 군수는 더 많은 어르신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150세대로 늘렸다.

군은 공공실버주택 입주자를 모집해 지난달 26일 추첨을 통해 128명을 선발했다. 공공실버주택은 12월 완공돼 전공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 예정이다.

유 군수는 "안되는 게 어딴습니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되도록 만드는 게 군수가 할 일 아닌가요"라고 신념을 밝혔다.

이어 유 군수는 "주변에서 어렵다 안될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는데, 주변에서 그러니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며 "군민들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군수가 됐는데 그만큼 할 수 없어 강하게 밀어 부쳤다"고 말했다.

'오로지 주민만을 생각한다'는 유 군수의 군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4차선으로 새롭게 단장된 고려시멘트 앞 도로 (위)가 장성군의 첫인상을 확 바꿔 놓았다. 유두석 장성군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가 성공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공공실버주택. (장성군 제공)

장성군, IoT 활용 어르신 돌봄사업 행안부 우수기관상

장성군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홀몸·치매 어르신 돌봄 사업 'IoT@엄니 어디가?'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장성군은 행안부가 개최한 제1회 디지털 사회혁신 한마당에서 심사위원 평가(70%)와 현장 투표(30%) 모두 높은 점수를 얻었다.

'IoT@엄니 어디가?'는 스마트기기와 연동하는 비컨(무선통신망), GPS(위성항법시스템), 인체 감지센서로 동선을 파악하는 어르신 돌봄 사업이다.

심장박동 측정과 위치 확인 등을 통해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마을 이장 등으로 구성된 돌봄단과 군청 복지 담당자, 자녀 등 가족에게 신호를 보낸다.

어르신이 사는 집의 방 온도와 습도를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장성군은 행안부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6월 시행에 들어갔다.

진원면 영신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 이달 말까지 사업을 이어간 뒤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복



지서비서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겨울철 화재 대피 훈련 실시

장성군·경찰·소방서 합동

장성군은 최근 장성공립노인요양병원에서 장성경찰서, 담양소방서, 장성119센터와 합동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훈련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때 타인의 도움을 얻는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병원 관계자들의 초동 대응 및 환자대피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화재대피 훈련 후에는 심폐소생술과 소화기·완강기 사용법 등 응급상황 시 필요한 안전교육이 진행됐다.

김영권 장성부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화재 발생 시 올바른 행동요령을 숙지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2018 여수 총무 청소년 아카데미

추가모집

2018.12.8. 토 10:00 - 18:30

대상: 초·중고생 누구나!
 일시: 2018년 12월 8일 (토) 10:00-18:30
 장소: 여수시 일원
 참가비: 무료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접수
 모집일정: 12월 5일 (수) 까지
 참가신청: 참한창작소 블로그 & 이메일 접수
 blog.naver.com/charmhan0510
 -신청확인 후 개별 연락 드립니다.
 문의: ☎ 010-7442-7325
 ✉ charmhan0510@naver.com

주최 | 여수시 주관 | 지역미래연구원 후원 | 光州日報 아모티컬동조합 참한창작소